

순천시장, '순천 미래 책임진다' 꾀직한 인사 포진

검찰 출신 소병철 지역위원장의 눈길 향해 '무소속 출마 없다' 허석, 기회 달라 '읍소'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순천시장은 현 허석 시장의 강한 재선 의지 속에 더불어민주당의 꾀직한 후보들의 도전이 여느 선거 때 보다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사용한 혐의로 수사와 항소심 재판을 치른 허석(59) 순천시장은 항소심 벌금 선고와 상관없이 재선 도전을 시사하며 준비에 정성을 쏟고 있다. 허 시장은 지난 4년간 이론 성과를 바탕으로 새 순천의 완성과 이를 위해 준비 중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강조했으며, 무소속 출마는 없으니 자신이 직접 완결할 기회를 달라고 시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재임 기간 어게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순천만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시민 숙원인 시청 청사 건립, 다양한 제도 도입으로 직접민주주의 가치 실현 등은 호평받고 있다. 하지만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후보들의 거센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관건이다.

구희승(60) 전 광주지법 판사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중앙부처에서 15년간 근무한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시민과 만남을 강점으로 삼고 있다. 순천시가 어떻게 행정을 펼쳐야 할지, 중앙부처와 관계 설정 등에서 나아갈 바를 제대로 알고 있는 시장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에 복당해 상당한 활약을 펼쳤으며 소병철 의원과의 관계도 급부상되면서 중량감을 더했다.

김동현(61) 전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30년간 공직에 몸담으면서 순천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고 자부하고 있다. 재직 중에도 주말이면 순천에서 지역을 공부하면서 시민과 소통 행보를 이어갔고, 포럼 등을 통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의 미래 등을 진솔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통에 강

점을 보였지만 생각한 만큼 지지율로 표현되지 않아 깊게 고민 중으로 알려졌다.

4년 전 순천시장에 무소속 출마해 고배를 마신 바 있는 손훈모(53) 변호사는 패기를 앞세우며 시퍼런 날을 세우고 있다. 변호사 활동 중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 소송과 인권을 우선 쟁기는 변호사로 이름값을 톡톡히 알렸다. 조직력과 지지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공천을 앞두고 낙점 가능한 몇 안 되는 후보에 포함되고 있다. 인권 활동으로 다져진 깨끗하고 소신 있는 이미지가 돋보인다.

오하근(55) 전남도의원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유능한 경제시장'이라는 구호를 걸고 순천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전남도의회 의정활동과 동시에 표발을 일구고 있으며, 젊은 정치를 무기로 미래 순천을 위한 지도력을 발휘할 계획이다. 광양 경제정책조정위원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동 세상 구현이 목표다.

임종기(65) 전남도의원은 순천시의회 의장과 전남도의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의 소유자다. 강직함을 무기로 사교적인 데다 정치적인 유대관계가 좋아 순천시장의 꿈도 실행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행사에 참석했다가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 및 안주까지 험난한 길이 예고된다.

장만재(64) 전 전남교육감은 허 시장의 재선을 막을 장본인은 바로 자신임을 강조했다. 매우 유력한 후보로 순천대 총장과 전남도 교육감직을 무난히 수행하면서 인지도를 높였다. 재선 교육감과 전남도지사 출마 등 빠지지 않는 정치 활동은 재선을 향한 허 시장의 최대의 적수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선거에서도 순천시장과 전남도 교육감 출마를 놓고 저울질할 정도로 인지도와 능력 면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던 인물이 있다. 노관규(61) 전 순천시장 역시 출마가 점쳐진다. 다만 주위에서 강력히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자신은 무척 심사숙고하는 모습이다. 최근 대선에서 핵심적 역할과 함께

순천시장 출마 예정자(가나다순)



은 힘을 기울이면서 정권 재창출을 도왔으나 추스를 새도 없이 다가온 지방선거에 신중함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출마가 예상됐던 허유인 순천시장은 민주당과 시민의 뜻을 받들고 조직에 충실한 정치인의 길을 걷기로 했다는 뜻을 밝혔다. 시장 출마 의지를 접고 전남도의원 출마로 급선회했다.

6·1지방선거 순천시장 후보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당내 경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검찰 출신의 소병철 지역위원장이 누구에게 눈길을 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관측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일부 후보는 처벌이나 기소에 따른 재판 전력이 있고 일부는 대선 기여도가 상당한 점 등 상대성이 심해 지역위원회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구도가 치열할 전망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나주시장 '전국 최다' 17명 출전...불꽃경쟁 예고

강인규 시장 3선 출마 공식화 속...16명 거센 도전 민주당 경선 후보 15명 압축 따라 선거 판세 결정

6·1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만 전국 최다 17명을 기록한 전남 나주시장 선거가 불꽃튀는 경쟁을 예고하면서 지역정가 핫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 강인규 시장이 출마기념회를 통해 3선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같은 당 소속 출마예정자 14명과 무소속 2명이 거센 도전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 심장부인 전남지역 지방선거 항배는 '당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후보자가 난립한 나주시장 선거는 경선 후보군 압축 구도에 따라 향후 판세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역대 나주시장 중 처음으로 재선 임기를 채우고 첫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강인규 시장은 민선 6·7기 시장 당선을 저력으로 여전히 탄탄한 조직력과 지지층을 과시하고 있다.

재임 기간 에너지수도 기반 구축, 지방재 100% 상환 등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3선 도전에 대한 반대 여론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측근 비리는 3선 가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쟁쟁한 이력을 앞세운 경쟁자들의 도전을 불러왔다.

가장 먼저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역임한 윤병태 전 전남도 정부부지사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윤 전 부지사는 기획재정부에서 25년간 쌓아온 경제 분야 전문성과 전남도 부지사 재임 시절 인정을 얻은 업무 추진력, 중앙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화려한 경력 때문에 출마에 정치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견제구를 받고 있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여론이다.

지방행정고시 출신으로 공직에서 40년 가까이 일자리 정책부터 문화 콘텐츠 개발, 관광인프라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실력을 쌓은 김병주 전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의 활동도 두드러진다. 김 전 국장은 특유의 친밀감과 구수한 입담을 내세운 소통 능력과 포용력으로 지지층을 넓혀 나가고 있다. 경쟁자인 윤병태 전 부지사와는 나주 남평읍 동향 출신으로 지지기반이 겹치기도 한다.

3선 도의원 출신의 이민준 현 전남도의원(전남도 부의장)도 오랜 지방정치 경력과 두꺼운 지지층을 기반으로 결전에 대비하고 있다. 자신의 도의원 선거구를 벗어난 빛가람동(혁신도시)에 예비선거사무소를 차렸다는 점에서도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신정훈 국회의원의 측근으로 민선 7기 나주시장 선거에서 경쟁했던 전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의 출마예정자도 일찌감치 경선 리턴매치에 나섰다.

먼저 이재창 전 보좌관은 현 지방분권 전남연대 상임대표와 자치분권 나주시

민연대 부회장으로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대학교수 출신의 장점을 심분 활용해 지역 학부모 단체와는 교육 문제 아젠다를 중심으로 연대의 끈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민선 7기 나주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강인규 시장과 결선에서 1대 1 구도로 맞붙었다가 아쉽게 패배한 이용범 전 비서관(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정책자문위원)도 절치부심의 비장한 각오로 지역민들 사이를 파고들고 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며 쌓은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세대교체를 부르짖는 젊고 참신한 복수 출마예정자들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를 거쳐 국무총리실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김덕수 전 비서관은 저인망식으로 지지층을 넓혀 나가며, 담대하게 구상한 지역 발전 공약 후보에 열정을 쏟고 있다.

출마예정자 중 최연소인 최용선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광산구청 정책팀장, 청와대 국정 참여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나주, 기본 좋은 변화'를 슬로건으로 20~40대 당원과 유권자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연론인 출신들의 도전도 관심이다. 한국기자협회 초대 전국 시·도기자협회장을 역임한 박원우 전 전남매일 부사장은 30년이 넘는 기자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 비판·대안 제시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 관광인프라를 단순히 확대할 방안으로 제시한 메타버스, 가상·증강현실(AVR)을 활용한 관광 상품 제안은 차별화된 공약으로 주목받는다.

초·중학교 유년 시절을 나주에서 보낸 MBC 간판 시사 프로그램 PD수첩 진행자로 PD 저널리즘을 탄생시킨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이 관심 후보로 분류된다.

송 전 시장은 다양한 사회현상을 냉철히 분석하는 능력과 인문학적 통찰력이 장점이다. 그는 나주배, 나주곰탕, 영산포 숙성 홍어 말고도 나주가 가진 수없이 많은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토대로 나주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현직 시의원 2명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최근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선용 전반기 나주시의회 의장은 오랜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나주, 관광 나주, 양극화 해소'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의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지지자나 시의원도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재선 경력의 이기병 전 전남도의원, 현직 세무사인 강백수 전 경기도의원과 지역 인터넷신문 발행인 배대표도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다.

무소속 후보로는 김도연 전 나주소방서장과 양승진 전 나주시 공무원이 뛰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애초 민주당 입당을 통해 경선 참여를 선언했지만, 조직과 금권에 의존하는 정당정치의 모순을 목도하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의 불모로 전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가나다순)



락한 데 대한 회의감 때문에 무소속 출마로 선회했다. 김 전 시장은 화순·영광·나주소방서장, 전남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 전남소방항공대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공약은 나주에 전남 중·서부를 아우르는 의료 메카 조성, 농생명, 축생명, 바이오 매스 연구센터 유치 등이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무소속 양승진 후보는 35년간 나주시청에서 토목·건축·지역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역사·문화·예술·홍효도시 완성, 원도심 르네상스 구현, 매관매직 없는 공무원 인사 혁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